

# 고령화와 임가소득 연관분석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최근 우리나라 임업은 고령화,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산촌 소멸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임업경영주의 고령화는 임업 생산성과 경영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 차원을 넘어 임업 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및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림어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임업 분야 역시 고령 경영주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고령 임업인은 노동집약적 작업 수행에 한계를 가지며, 기술·정보 활용 능력 및 시장 대응 역량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은 생산비 증가, 판매 경쟁력 약화, 소득 감소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가 간 소득 격차와 경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임업은 탄소중립, 산림복원, 바이오경제 등 미래 녹색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또한 스마트임업, 청년임업인 육성, 산림소득 증대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고령화가 임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기존 연구는 단일 조사자료를 활용하거나 단순 현황 분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임업 경영환경과 소득구조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승인통계인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소득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를 연계하여 임업 고령화가 임가소득 및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 평균 비교를 넘어 분위회귀 및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등을 활용하여 고령화 영향의 이질성과 소득 양극화 구조를 규명하고,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업경영주의 연령 구조가 임가소득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고령화가 저소득 임가와 고소득 임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여 임업 내 소득 양극화 구조를 규명한다.

셋째, 경영규모, 노동투입, 품목 다양성, 판매가격 등 주요 경영요인이 고령화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한다.

넷째,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규모화 지원, 가격 안정화, 청년임업인 확대 등의 정책 효과를 추정하고 지속가능한 임업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임업경영주의 고령화는 임가소득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고령화의 영향은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3. 경영규모, 품목 다양성, 판매가격 등의 경영요인은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4. 규모화 지원, 가격 지원, 청년임업인 확대 정책은 임가소득 안정성과 소득불평등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

## 4.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승인 임금통계 3종을 연계하여 임가의 소득·경영·생산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평균 중심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고령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타겟팅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Oaxaca-Blinder 분해를 활용하여 고령 임가와 비고령 임가 간 소득격차 발생 원인을 구조적으로 규명한다.

넷째,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정책 적용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임금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실증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향후 청년임업인 육성, 스마트임업 확대, 산촌 활성화 정책의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